
第8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6年6月5日(水)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江東區遁村洞79番地3號女子高等學校設立要求請願審査의件
 2. 惠化初等學校되찾기에關한請願審査의件
-

審査된案件

1. 江東區遁村洞79番地3號女子高等學校設立要求請願審査의件
(金錫浩 議員 紹介) ... 1면
 2. 惠化初等學校되찾기에關한請願審査의件(文龍子 議員 紹介) ... 2면
-

(14時 43分 開議)

○委員長 安順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江東區遁村洞79番地3號女子高等學校設立要求請願審査의件
(金錫浩 議員 紹介)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1項 江東區 遁村洞 79番地3號 女子高等學校 設立要求 請願 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本 件은 심도 있는 審査를 위하여 지난 第84回 臨時會時 우리 委員會에 上程되어 보류되었던 案

件으로 기이 請願紹介議員의 趣旨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本件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質疑 答辯을 생략하고 바로 議決節次에 들어가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江東區 遁材洞 30번지의 4호 현대아파트 11동 603호 김영숙외 327명이 都市整備委員會 金錫浩 委員長의 紹介로 請願 신청한 江東區 遁材洞 79番地3號에 女子高等學校 設立要求의 請願은 請願人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江東區의 學生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男女共學으로 하되 女學生 수용규모를 확대하여 請願趣旨를 수용하고, 本 請願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다 하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2. 惠化初等學校되찾기에關한請願審査의件(文龍子 議員 紹介)

(14時 46分)

○委員長 安順德;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惠化初等學校 되찾기에 관한 請願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本 案件의 紹介議員이신 保社委員會 文龍子議員께서 請願趣旨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龍子 議員; 안녕하십니까? 무덤고 또 무척 분주하신 데에

도 保社委員會 所屬 文龍子, 부족한 저에게 請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安順德 文化教育委員長님과 孫馥 幹事님, 그리고 특히 教育關係機關에 계시는 室長님, 국·과장님 또 管理局長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紹介하게 된 원인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몇 마디 써 온 것 그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初等學校 教育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들 어린꿈나무들이 가장 중요한 基礎教育을 받는 중요한 教育機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鍾路區 明倫洞 1가 산 1-27의 惠化初等學校는 72년 初等學校의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鍾路區 惠化洞 13번지 현재 惠化女高자리에서 현재의 위치에 맞바꾸어 移轉한 것으로 현재 惠化初等學校는 당시 이와 같은 사유로 移轉하였던 學校 周邊環境의 악화로 다음과 같이 教育與件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좁고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경사진 通學路입니다. 人道와 車道가 구분도 안된, 道路라 할 것도 없는 좁고 가파른 길에서 언제 車輛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交通事故의 위험 속에 항상 곡예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通學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마저 隣近住民들의 不法 駐車로 더욱 불편하고 주변이 環境改善地區로 지정되어 住宅들의 新築, 改築工事が 끊임 없이 없습니다. 建設 裝備들의 많은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고 또 火災가 발생한다 해도 전혀 초동진압이 어려워 대형참사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學校에서 녹색어머니회 등을 조직해 자발적으로 學父母를 다수 동원 참여케 하여 生計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通學 또 退勤時間에 교통정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호

소합니다. 둘째, 학교 뒷산과 후문 주변이 인적이 뜸한 地域 이라서 不良靑少年들의 본드 같은 많은 빈 깡통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무리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몰려와 非教育的인 行 動을 하고 후문을 이용하는 學生들은 금품을 털리고 폭행을 당하며 우범지역화되어 이들의 生活指導와 安全問題가 아주 심각하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뜻있는 學父母들이 몇 명 모여 관할 파출소 등 關係機關에 번번이 통보하였지만 고지대에다 거리가 멀고 人 力의 한계 등으로 治安의 부재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호소합 니다.

學生들의 효율적 教育을 위한 야외학습 등 學校 밖의 教育 을 행할 때 대형버스 등의 진입 불가로 멀리 떨어진 곳에 駐 車를 하고 또 이용하여 이동시간의 낭비가 많이 되는 危險이 있으며 학교공개수업이나 연수회 등을 하고 싶어도 外部人이 나 학교에서 참여를 꺼려서 實施를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學父兄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 실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學生들의 보다 나은 教育을 위해 住民들의 전 출도 많아지고 教師들도 전근 때만 고대하는 분들도 계신다 고 합니다. 그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서울市教育廳의 高等學校 재배치 계획의 일환 으로 惠化女子高等學校가 江北區 水踰洞으로 移轉하게 되었 던 바 서울特別市教育廳이 惠化女高 敷地를 96年末 중 아파 트 용지로 賣却하여 江北區水踰里로 惠化女高 移轉準備를 하 고 있는 계획을 변경하며 현재 惠化女高 敷地 2,612평을 원 래 주인인 서울惠化初等學校로 되돌려주어 鍾路區 明倫洞 산

1-27 고지대의 진술한 바와 같이 취약한 教育環境으로 初等學生과 學父母 및 初等學校 공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惠化初等學校를 현 惠化女高 위치로 移轉해 어린이교육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國家 百年大計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우리 文化教育 委員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同請願紹介를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 5月 18日 한국경제일보와 또 5月27日 국민일보에도 이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課長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文化教育委員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教育廳에서도 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뜨거운 감사를 느낍니다.

또 保社委員인 제가 왜 이것을 地域도 아니면서 말씀드리게 됐나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로 學父兄으로부터 敎會에서 호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데도 감히 이렇게 올리니 좋은 結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安順德; 文龍子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惠化初等學校 되찾기에 관한 請願에 대한 檢討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혜화초등학교되찾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請願에 대하여 執行部側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意見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管理局長 鄭亨鎭입니다.

저희 惠化初等學校, 惠化女高 이적지는 저희가 1994年 저희 教育廳의 學校 再配置計劃의 일환으로 惠化女高를 江北區의 水踰洞에 이전하고, 惠化女高 이적지는 저희가 賣却處分을 추진하였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請願의 內容과 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 內容과 같이 惠化初等學校, 惠化女高를 이전하는 경우에 學生 收容上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女子高等學校를 初等學校로 사용하는데 따른 豫算이 수반됩니다. 그런 豫算이 수반되고, 豫算보다는 저희는 明倫洞住民들의 일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우려했습니다만 저희 教育監께서 지난 번에 本會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住民들의 意見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5月 29日부터 31日까지 惠化·명륜·동주민 1,623名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8%가 이전을 찬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住民 意思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 惠化女高 이적지의 惠化初等學校 이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방침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教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紹介議員의 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그리고 執行部側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質疑·答辯 順序입니다.

會議進行은 원활한 議事進行을 위하여 一問一答으로 進行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 請願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惠化女高와 현재 惠化初等學校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약 450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全體 學生數는 몇 명이지요?

○管理局長 鄭亨鎭; 學生數가 惠化初等學校가 24學級에 819名, 惠化女高는.....

○劉大運 委員; 아니, 初等學校만?

○管理局長 鄭亨鎭; 24學級에 819名입니다.

○劉大運 委員; 學校라는 것은 여론수렴의 방법론에서 비교적 이 學校가 明倫洞에서 惠化洞으로 옮길 경우에 조금 멀어진다고 느끼는 學父兄을 주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學年別로도 했습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中部教育廳에서 우선 전화로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시면 여기 關係官 中에서 中部教育廳 初等課長한테 전화를 걸어서 學年別 學父兄에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의 방향 속에서 여론수렴을 한 것인지 그것을 좀 答辯하

계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高等學校로 初等學校가 이전이 될 경우에 初等學校 어린 學生들이 學校를 사용하기에, 화장실부터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리비용이 예상되는데 그 豫算은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저희가 8個 棟의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女學生들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經費가 약 6億 4,000萬원, 그 다음에 初等學校가 읍에 따라서 給食施設을 하는데 한 1億 5,000萬원, 그래서 約 7億 9,000萬원, 그러니까 8億원 정도의 豫算이 수반되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니까 約 9億원 정도면 충분하게 初等學校 運營에 지장이 별로 없겠네요?

○管理局長 鄭亨鎭; 네,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全體 豫算上 措置가 말이지요, 本委員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뒤따라 갈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惠化女高 자리 부지를 아파트 敷地로 賣却한 賣却 豫想代金이 얼마였습니까, 豫想代金?

○管理局長 鄭亨鎭; 저희가 지금 현재 公示地價를 말씀드리면 惠化女高는 約 78億원 정도, 그리고 惠化初等學校는, 우선 惠化初等學校가 4,474坪이고 惠化女高 자리가 2,612坪입니다. 그래서 惠化女高는 약 78億원 정도, 이것은 公示地價입니다. 그리고 惠化初等學校는 109億 3,400萬원, 그래서 지금 현재

公示地價上으로 봐서는 惠化初等學校의 부지를 賣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익입니다. 하지만 바로 惠化女高는 길옆 대로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公示地價 이상으로 저희가 78億원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公示地價上으로 봐서는 惠化初等學校가 더 많이 평가되겠습니다. 그것은 地籍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劉大運 委員; 우선 公示地價로 나타나는 것을 官廳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答辯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나중에 賣却過程中에서 높고 낮은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당초에 教育廳에서, 어떤 豫算部署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歲出을 할 경우에는 歲入을 먼저 計上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歲入에 이 敷地를 팔아서 水躰里로 옮기는 惠化女高를 敷地買入이라든가, 신축에 소요되는 建設費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다 計上해서 惠化女高를 팔면 水躰里로 이전하는데 더 좀 넓고, 쾌적하고, 豫算上 특별한 조치 없이도 소위 물물교환으로 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옮겼을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재 위치한 惠化初等學校가 賣却 移轉해서 現 初等學校 자리를 賣却할 경우에 그 代金이 엄청난 차이로 부족액이 나타나면 나머지 충당되는 豫算의措置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려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오히려 惠化初等學校가 公示地價로만 하더라도 100億臺가 넘고.....

○管理局長 鄭亨鎭;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물론 惠化女高 자리는 公示地價의 몇 배로 뛰

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재 78億원인데 이것은 200億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업에 지출할 그런 豫算上에 큰 변동과 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옮겨 주어야 된다는 本委員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委員님, 許光泰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지금 請願人의 請願要旨를 들어본 것이나, 또 實務局長님의 答辯을 들어봤을 적에 이 學校를 되찾아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本委員도 사료됩니다만 뒤따르는 문제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로 20年 前에 이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72年度에 惠化初等學校를 저쪽으로 옮긴.....

○許光泰 委員; 그 이유가.....

○管理局長 鄭亨鎭; 그 때 당시에는 지금 惠化女高 자리에, 본래 惠化初等學校가 있는 자리인 惠化洞은 그렇게 人口가 많지 않았는데 成均館大學 뒤 明倫洞에 住宅이 밀집하고 거기가 學生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惠化女高를 이쪽으로 신설하고 惠化初等學校를 그쪽으로 옮겼답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400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管理局長 鄭亨鎭; 한 400m 내지 450m.

○許光泰 委員; 450m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엄청나게 이전을 해야 될 만큼 사유가 되는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管理局長 鄭亨鎭;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
다만 지금 현재 惠化初等學校 敷地가 한 4,500坪이 되고 이
쪽은 한 2,600坪뿐이 안 되기 때문에 敷地가 협소하지 않느
냐, 그 때 당시에는 惠化初等學校가 學級 數가 상당히 많았습
니다만 지금은 人口가 줄어들어서 24個 學級뿐이 안 되지만
그 때 당시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넓은 땅을 차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明倫洞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런데 그 예측은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네,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현재는 819名에 學生은 24學級밖에 되지 않
는데 예상했을 때는 넓은 데로 옮겨야만 많은 學生들이.....

○管理局長 鄭亨鎭; 그것은 거의 다 都心の 공동화 현상의 일
종으로 일어나서 그렇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許光泰 委員; 좋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것은 현
재 서울市教育廳이 안고 있는 懸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유사
한 이전하는 현상이 있는지, 또 있을 것인지를 한번 여쭙어
보고 싶은데요?

○管理局長 鄭亨鎭; 저희는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年度에 만들어 놓은, 물론 그것이 92年度에 韓國教
育開發院을 통해서 저희가 用役을 주어서 關係機關의 意見을
다 들어서 전부다 서베이해서 저희가 만든 基本計劃이 되겠
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나라가 사회여건이 엄청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一部 再配置計劃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委員님들께서 議決했습니다만

遁村工高하고 廣陽高等學校 이전문제도 저희가 紫陽洞쪽에 그렇게 강변을 끼고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리라고는 저희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주택 재개발, 고층화, 고밀도화 되는 바람에 어차피 저희는 計劃된 再配置計劃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지금 答辯의 要旨에서도 드러난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行政이 무계획성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계획된 건이 아니라 民願만 발생되면 그 순간순간 처리해 나가는데, 멀리 보지 않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계획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 惠化初等學校처럼 나타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教育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조성이 이 時期에 적어도 한 20餘 年은 내다보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네, 알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덧붙여서 그 學校가 20年 동안 유지돼 왔는데 請願人의 얘기에 의하면 交通이 혼잡하고 駐車難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交通事故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年 동안에 交通事故 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전혀 그것은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許光泰 委員; 혹시 請願人은 알고 계십니까?

○文龍子 議員; 잘 모릅니다.

○許光泰 委員; 앞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學校周邊의 駐車難 問題는 이 學校뿐만 아니고 서울市內 全體 學校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변

두리에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駐車問題를 얘기해 드리겠는데 적어도 學校 學生들이 운집하는 곳, 學校通學路는 行政府와 협조를 해서 駐車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획을 한번 해서 협조를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서 이 부분에 答辯을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鄭亨鎭; 물론 學校 바로 入口에는 차를 停車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學校가 대로변에 있는 것이.....

○許光泰 委員; 몇 m 거리 정도까지 駐車가 안 되어 있습니까, 파악 하시기에?

○管理局長 鄭亨鎭; 그것은 管理局長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제가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入口에서 30m도 안 떨어졌습니다. 20m나 제대로 떨어져 있을까, 전부 駐車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駐車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도 眼下無人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行政主務官廳과 협조해서 駐車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린이를 保護할 수 있는 그런 案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關係機關과 협의해서 學校駐車 禁止區域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아까 劉大運 委員님께서 輿論調查하신 문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가 學父母 대상으로 836명을 전원입니다. 그래서 807명을 意見書を 回收했습니다. 836명 중에서 807명의 意見書を

回收했는데 찬성이 787명 97%, 반대가 20명 3%가 되겠습니다. 同窓生을 대상으로 해서 60명을 여론조사 했는데 60명 전체가回收됐습니다. 찬성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地域有志를 대상으로 756명을 했습니다만 756명 전원回收가 됐습니다. 찬성이 741명, 반대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住民들의 輿論은 거의가 移轉을 찬성하는 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 輿論調査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5月 29日부터 5月 31日로 되어 있습니다. 3日 동안 한 것이죠.

○劉大運 委員; 그러면 請願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었네요?

○管理局長 鄭亨鎭; 아닙니다. 請願 들어온 다음이죠. 5月 29日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면 왜 輿論調査를 했어요?

○管理局長 鄭亨鎭; 지난 번 議會에서 住民들의 의견을 충분히, 일부 明倫洞 地域住民들이 먼거리로 學校가 移轉함에 따른, 惠化女高 자리로 移轉함에 따른 明倫洞 地域住民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住民들의 輿論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住民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輿論調査를 했습니다.

○劉大運 委員; 정식으로 發言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劉大運委員.

○劉大運 委員; 지금 말이죠, 이 惠化初等學校를 惠化女高 자리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請願 내주신 文龍子 議員도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本委員은 나머지 教育政策도 이제는 이 정도의 손발은 맞춰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請願

이 들어온 날짜와 請願과 관련된 輿論調查, 住民意見收斂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비행기 잡아오듯이 했다고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 당초에 작업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은 請願하고 우리는 輿論收斂해서 文化教育委員會에서 請願을 다루게 되면 惠化初等學校가 당초의 惠化女高 자리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委員會에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작업을 다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제트기 아니에요.

○管理局長 鄭亨鎭; 委員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참고를 하세요. 答辯하라고 안 했어요. 遁村高等學校도 그래요. 教育의 흐름이 男女共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教育廳 政策이 옳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學校도 순수한 地方自治團體에서 그리고 순수하지 않은 政黨의 개념 차원에서도 教育의 政策은 與野가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전부다 이용해도 좋은데 教育만큼은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與黨도 野黨도 遁村高等學校도 바로 選舉때 악용당한 사례, 잘 알거예요, 얘기 들어서. 증거물도 전부다 입수해 왔는데 굳이 男女共學으로 가는 그런 教育政策 속에서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수집은 하고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事業들이 있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業務報告도 자주하고 여러 가지 意見收斂도 합니다만 상의할 첫째 機構가 어디예요. 教育委員會 빼놓고 다음이 文化教育委員會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명군, 장군되게 만드는.....

本委員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教育廳 政策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野黨이 악용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

이고 與黨이 악용하려고 해도 최대한 합당한 論理를 전개해서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 안일무사와 미끄럼 타는 식의 政策,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발목을 잡아서 다시는 그런 제2의, 제3의 教育政策이나 施設管理를 못 하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먼저도 내가 管理局長한테 얘기를 했지만 95年度에 우리가 무려 58日 동안을 調査特委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왜 서울市民인 學父兄들에게 給食施設費까지 돈을 받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수렴해서 今年에 給食施設 98개 學校에 한 200억원 投資하는데 돈 안 받습니다. 是正됐어요.

두번째, 學校內의 정압시설을 今年 12月까지 옮기라고 조치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그런데 地域教育廳에 가 보면 옮길 곳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세번째의 결론은 給食施設 業者 選定過程에 엄청난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것 보완해 달라고 조사 결론서를 本會議에 議決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더 지능화 됐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 文化教育委員會 내에서 몇 가지 사항을 두고 調査特委를 구성하자, 구성하자 말들이 많습니니다, 委員님들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調査特委를 구성할 시기적 상황이 아니므로 좀더 기다려보자, 전부 異口同聲입니다. 이 정도는 여과 조치를 그리고 議會가 그만큼 힘들여 調査해서 그 결과를 내 보내면 구부러진 부분은 교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한번 答辯해 보세요.

○管理局長 鄭亨鎭; 지금 委員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所管事項이 정압시설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劉大運 委員;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느냐, 모든 것이 이 정도의 本 請願 件과 같은 내용의 신속성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教育政策이. 나머지 件은 전부 몇 년, 몇 십 년 가도 안 되는 것이 거의 많은데 이것은 제트기 아니냐. 제트기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管理局長 鄭亨鎭;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 請願이 특정한 政黨이든가 특정한 어디에 얘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輿論調查까지 하고 그랬다는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政黨 얘기를 한 적도 없고, 政黨이 악용하면 本委員도 野黨 黨籍을 가지고 있지만 막겠다고 그랬어요.

○管理局長 鄭亨鎭; 알았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이 문제는 처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또 막았어요, 지난번에 내가 국회의원이고 某 지구당 委員長이 국민회의이고 그 地域의 總選과 관련해서 표가 좀 안나올 것 같다, 여기에도 그 同僚委員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學校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된다 말이지. 그렇듯이 어떤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그리고 教育政策다운 教育政策, 한번 옳다고 해서 세운 것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신속하게.

○管理局長 鄭亨鎭;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李善宰 委員님.

○李善宰 委員; 한 번 가 보셨습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管理局長이 現場에 못 갔습니다.

○李善宰 委員; 왜냐 하면 學生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옮겨 주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請願인들이 낸 이야기를 보면 不良靑少年 우범지역이고, 通學이 불편하고, 언덕길이어서 그렇고, 駐車가 그렇고, 좁은 通學路에, 오지에, 이렇다면 이런 곳에다 왜 최초로 學校를 옮겨 세웠었나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 目的 達成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것도 그냥 나쁜 것으로 마구 이렇게 몰아 제끼고 그 目的을 達成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왕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비니까, 學生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옮겨주자 그런 정도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管理局長 鄭亨鎭;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善宰 委員; 그래서 내가 가 보셨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된 대로 정말 이렇더냐 말이죠. 가 보시지 아니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문제가 만들어지면 職員이든 아니면 局長님이든 現場에 가서 現實을 파악해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의사를 밝혀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가 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남의 하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의사 결정하게 되면 이것 올바른 의사결정 또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저희가 地域教育廳의 報告를 받았습니다.

○李善宰 委員;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나쁜 데에다 學校를 세웠던 것 같아서.....

○委員長 安順德; 林靜枝委員.

○林靜枝 委員; 林靜枝委員입니다. 惠化初等學校의 전교생 수

와 학급 수는 어떤지요?

○管理局長 鄭亨鎭; 현재 23학급에.....

○林靜枝 委員; 맞바꾸게 된 원인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鄭亨鎭; 惠化女高가 江北區 水踰洞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惠化女高 자리가 본래 惠化初等學校 자리입니다.

○林靜枝 委員; 아니, 맨 처음에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管理局長 鄭亨鎭; 바꾼 이유가 그 때 당시 惠化洞에 보면 成均館大學 뒤 明倫洞쪽에 人口가 많고 또 땅도 넓고, 지금 현재 惠化女高 자리는 2,612명에 불과하고 惠化初等學校가 있는 곳은 약 4,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땅도 넓고 學生數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明倫洞쪽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 현재 惠化洞쪽으로는 人員이 줄어들고 주변의 學生數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惠化女高가 차제에 移轉하니깐 옛날의 惠化初等學校 자리를 찾자, 그래서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林靜枝 委員; 아니요, 初等學校 學生數가 앞으로는 다 그러면 惠化初等學校 學生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숫자는 비슷할 텐데 왜 初等學校 學生들하고 高等學校 學生들하고 바뀌었느냐 이 얘기죠.

○管理局長 鄭亨鎭; 옛날에는 거기에 女高가 없었습니다. 女高가 없었고 惠化初等學校였었는데.....

○林靜枝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만 그렇게 위험한 地理고 20年 前에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나요? 初等學校 學生이 女高生보다 자기방어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城郭을 끼고 있고 약간 虞犯地域은 虞犯地域입니다. 다만, 제

일 어려운 것이 通學與件이 高地帶입니다, 거기가. 通學을 하려고 하면 거기가 高地帶고, 周邊이 通學하려고 하면 4m 道路뿐이 안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請願에 나온 대로 일부 차를 세워놓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林靜枝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25年 前에 學校를 맞바꿀 때도 初等學生…….

○管理局長 鄭亨鎭; 맞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맞바꾸지는 않고 惠化女高 자리가 惠化初等學校에 있었는데 그 學校를 늘리기 위해서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4,500평 자리에 땅을 새로 學校를 짓게 된 것이지요.

○林靜枝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惠化初等學校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방문한 다음에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梁東錡 委員님,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5月 28日에 開院했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를 29日, 30日, 31日 3日 間 했다 그랬지요?

○管理局長 鄭亨鎭; 네.

○梁東錡 委員;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든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議會가 28日에 開院했는데 29日부터 3日 間 그 많은 수를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本廳에서 管理局長이 中部教育廳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中部教育廳 自體內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惠化女高가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地域住民들이 진작부터 惠化初等學校

되찾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벌어지다가 그러다가 지난 번 選舉 때도 쟁점이 됐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住民들의 모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染東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필이면 우리가 5月 28日에 開院해서 29日부터 3日間을 했다, 그러면 누구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지, 지금 本廳에서는 여론 조사에 아무 관여도 안했지 않습니까, 中部 教育廳에서 다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管理局長은 사실 現地에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았고, 소위 크나큰 學校가 하나 이전이 되고. 또 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하다시피 現地를 踏査않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公務員들의 자세가 지금 이렇다고요. 그런 큰일을 하는데 소위 本廳 局長級이 現地踏査를 안고, 教育監도 現地를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안 나가봤다고 하는 사실은 中部教育廳 自體內에서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結果 檢討報告도 다 나왔고 執行部 意見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本 件하고는 다른 일이지만 지금 給食施設하는데 社會教育體育局長 계시지만 學校에서 業者들 選定하는데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 딱 해 놓고 나서 業者選定, 그런 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本廳에서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現地 한번 가보지도 않고 나서 올라온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公務員들 자세를 정말로 좀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도 입김이 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누가 보든지 삼척동자한테 물었다라도 말이지 이렇게 쉽게 돌아갈 리가 없다고.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鄭亨鎭; 제가 그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5月 初에 中部教育廳에서 惠化初等學校 이것을 다시 한 번 원상 복귀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住民들의 뜻이 어떠냐. 住民들의 뜻을 무시하고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一部 住民들의 반대여론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地域住民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라, 그래서 中部教育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이것이 특정한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진작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中部教育廳에서 저희 教育監한테 정식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지 갑작스럽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처음부터 請願이 올라오기 전에 해결을 했으면 政治적으로 누가 公約을 했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 다 될 텐데 請願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內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다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管理局長 鄭亨鎭; 저희는 請願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安順德;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이러다가 그냥 공연히, 選舉때 무슨 公約을 해 놓고 選舉 끝나고 나니까 이것 빨리 해주어야 된다 해서 어디서 압력 넣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이런 것이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住民의 意見을 수렴한다. 그랬으면 이것 아마 今年 內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昨年에서부터니까 내내 얼마 전부터, 하여튼 1年 前부터인지, 2年 前부터인지 내내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얼른 파악해서 이것을 했으면 괜찮았잖아요. 괜히 지금 와서 이렇게 請願까지 올려서 괜히 시끄럽게 해서, 여하튼 올라왔으니까 저거하시고, 林鍾化 委員 뭐 하실래요?

○林鍾化 委員; 議事進行發言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請願 2件이 있잖아요, 請願. 그러면 請願件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다른 문제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다 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알고, 하여튼 됐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魚潤慶 委員; 이미 많은 問題들이 지적이 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請願 經緯書에도 이렇게 보면 마치 虞犯地帶化해서 이 學校가 쫓겨가는 그런 인상이 짙는데 이 學校가 비어서 이렇게 빈 學校로 간다는 선의로 보기보다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 참 큰일 났구나, 이런 虞犯地帶化 돼 있는 초등학교가 여기 한두 군데뿐이라 하는 그런 아주 걱정스러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지금 현재 이 惠化初等學校가 惠化洞 幹線道路에서 몇 m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幹線道路에서 1km 조금 못 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魚潤慶 委員; 學校까지의 路幅이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鄭亨鎭; 2차선이고 차가 겨우 비껴서 한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다.....

○魚潤慶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m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管理局長 鄭亨鎭; 지금 이 進入路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進入路는 幅 4m 道路입니다.

○魚潤慶 委員; 主 進入路가 4m 道路 하나밖에 없느냐구요?

○管理局長 鄭亨鎭; 네, 그렇습니다.

○魚潤慶 委員; 그러면 學校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길이 너무 좁잖아요.

○管理局長 鄭亨鎭;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여기는 進入路가 4m로 협소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魚潤慶 委員; 아니, 그렇다면 나중에 이 惠化初等學校 자리를, 여기 보면 아마 建設業者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사고자 할 텐데 約 1km쯤 되는 進入路가 4m밖에 안 된다면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集團住宅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委員長 安順德; 잠깐만요. 제가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關係公務員들도 이렇게 이랬을 때는, 우리 委員님들도 물론 이런 請願을 다루면서 現場을 가보지 않고 여기에 와서 이런 문제를 關係公務員側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좀 확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魚潤慶 委員;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잘 해서 이것이 몇 m고,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되고, 몇 m고 이렇게 되는데 말로 하니깐 전혀 와 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잠깐 停會를 해야 되겠구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文書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아, 요즈음에 시청각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좀 하게 해 주세요.

○管理局長 鄭亨鎭;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것이 설명 자료가 있어요? 저기 누가 가지고 계시네, 저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둔촌고등학교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훨씬 논의하기도 좋고 할 텐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質疑 없으면 意見を 잠깐 停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36分 會議中止)

(15時 53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順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本 請願은 學校 移轉과 관련된 學父母 등 많은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現場의 실태 파악과 現場 輿論을 파악하기 위하여 同 地域을 現場訪問할 필요성이 있는 바 오늘은 質疑 答辯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오는 6月 7日 現場訪問을 통하여 면밀히 審査한 후 議決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4分 散會)

○出席委員

安順德 孫馥 徐在浣 梁東錡
劉大運 李善宰 李英順 李載震
林鍾化 許光泰 金亨根 魚潤慶
林靜枝 趙相勳

○委員아닌 出席議員

文龍子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教育廳

管里局長 鄭亨鎮